

## 지역건설업계 긴급 피해복구 나서

지역 건설업계는 28일 태풍 '볼라벤'으로 건설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다. 우선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태풍의 진로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긴급복구와 관련된 요청이 있을 경우 인력 및 장비를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전문건설협회 도회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태풍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 건설단체는 태풍 관련 피해가 접수되는 대로 현장상황을 파악해 긴급복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기관도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긴급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공사현장의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원주 혁신도시

등 정부공사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했으며 국토해양부도 각 건설단체와 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 부착된 광고판·표시판 제거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위윤기자

## 강원교통 SOC 건설방안 워크숍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접근망 구축 방안 워크숍이 개최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무익)은 30일 오전 횡성 성우리조트에서 원주국토청 관계자 및 관계기관, 설계용역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접근망 구축 방안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강원교통 SOC 건설방안을 비롯해 환경친화적 녹색도로 건설, 이용자 중심의 도로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6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원주=이명우기자 woolee@

# 문재인 1위

<강원>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45.85% 득표... 3연승  
손학규·김두관·정세균 순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강원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사진)가 1위를 차지, 대세론을 굳혔다.

문 후보는 28일 오후 원주 인터볼고 호텔에서 열린 도내 경선에서 선거인단 유효득표수 6187명 (투표율 61.25%) 가운데 2837표 (45.85%)를 얻어 2328표 (37.63%)를 얻은 손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오르며, 울산·제주 경선에 이어 3연승을 차지했다.

김두관 후보는 (678표·10.96%), 정세균 (344표·5.56%) 후보는 각각 3.4위에 그쳤다.

이로써 제주·울산·강원을 합산한 누적득표에서 문 후보는 1만 9811표를 얻어 1위를 기록, 초반 승기를 잡았다. 이어 손 후보 (7615표)가 2위로 집계됐으며 김 후보 (6675표)와 정 후보 (1696표) 등의 순이었다.

4명의 후보들은 이날 정견발표에서 세계 유일 분단도인 도에 대한 금강산 관광재개 등 한반도 평화구축 의제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등의 도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문재인 후보(기호 4번)는 △금강산 관광재개를 고리로 한 남북경제협력 기반 구축 △남북 협력성장 특별지원 강원도 지정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올림픽 추진 △남북한 및 시베리아 철도 연결을 통한 북극

항로 시대 개막 등을 약속했다.

김두관 후보(기호 2번)는 △임기 1년내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2·제3의 개성공단 조성 △북한~중국~유라시아를 잇는 북방경제권 조성 △남북한 철도 연결 및 천연가스 에너지라인 구축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등을 밝혔다.

정세균 후보(기호 1번)는 △금강산 관광재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여주~원주간 수도권전철 연장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등을 공약했다.

손학규 후보(기호 3번)는 △금강산 관광재개 △남북간 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대륙교통 기착점 구축 △남북 및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통한 동북아 새로운 에너지 허브 조성 △남북 경제공동체 구성 등을 내세웠다.

원주/박지은·김여진

## 건설사 74% 자금 사정 악화

건설산업 분석... 지방기업, 저가공사 수주 원인

도내를 비롯한 국내 건설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건설업 자금조달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450위 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 건설업체 금융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74%가 '2010년보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전년보다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는 응답률은 지난 2001년 조사 당시 68.5%에서 지난 해까지 10년만에 5.5p 늘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원인으로는 '신규계약축소' (34.5%), '금융기관 추가 차입의 어려움' (20.0%), '저

가공사 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 (10.9%) 등을 꼽았다.

반면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는 이유는 지역별,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소재 건설사와 대형업체는 '아파트 등 개발사업의 분양 악화'라고 답한 응답자가 23.8%로 가장 많았지만 지방 및 중소업체 중에서는 '저가공사 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꼽은 응답자가 50.0%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건설업계 자금 사정과 자금 조달환경 전망에 관한 질문에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6.0%에 그친 반면 '악화' 또는 '크게 악화'라고 답한 기업은 70.0%에 달했다.

박현철

## 동계올림픽 접근망 구축 방안 모색

### 내일 황성서 워크숍 친환경 건설 등 토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무익)은 30일 오전 10시 황성군 둔내면에 위치한 성우리조트 아라홀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원주지방환경청, 설계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하여 접근망 구축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강원교통 SOC 건설방안, 환경 친화적 녹색도로 건설, 이용자 중심의 도로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6개 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이날 건설교통 SOC분야를 비롯해 친환경 도로, 지역발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교환하고 동계올

림픽 지원도로 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올림픽 접근도로망 구축과 관련해 우선 추진중인 국도 6호선 둔내~간평구간 설계용역사들로 부터 구간별 노선 선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며 2017년 말 개통을 위해 관계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강원발전연구원 김재진 박사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통 SOC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이석홍 현대연연구소 본부장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이종인 도로계획과장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그린 하이웨이 구축방안', '도로설계시 공법 및 사용자제 선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원주/이주영